

여아, 임신중절로 3만여명이 죽어간다

94.12.2 보건연구원 조남훈 씨 지적

지난달 21일 라마다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남아선호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조남훈(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씨는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이 출생성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여아임신중절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우리 사회 남아선호 인식이 10년안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90년 신생아(총 62만6천8백61명) 중 남자는 33만7천9백85명, 여아는 28만8천8백76명으로 나타나 남녀성비는 여아 1백명당 남자는 1백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자연출생성비를 기준으로 볼때 실제 2만9천9백87명이 적은 것. 특히 지난 92년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14명)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여아 1백명 대비 남아수가 세번째 출산아 1백95.7명, 네번째 2백32.4명으로 밝혀져 세번째 출산때부터 태아성별검사와 여아중절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남훈부장은 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95년부터 결혼적령기의 남자수가 여자보다 많아져, 99년에는 남자 6명 가운데 1명이 신부감을 구하지 못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